

#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별 비교분석

박 종 태\* · 장 희 선\*\*

## 목 차

요약	3. 결론
1. 서론	참고문헌
2.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	Abstract

## 요약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최근 13년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해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였다.

*표제어: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 상대비율, 변동계수*

---

접수일(2014년 3월 14일), 수정완료일(2014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2014년 3월 21일)

\* 평택대학교 디지털응용정보학과 교수, jtpark@ptu.ac.kr

\*\* 평택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hsjang@ptu.ac.kr

## 1. 서론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였으며, 각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환경은 대량실업의 발생과 실업률증가로 연결되었다. 특히, 실업률 증가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인적동력자원의 사회진입 및 동력의 역할의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에서는 재취업 및 신규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고용 관련 현황 및 각종 정책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측정하여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연령인구라 한다. 생산연령인구는 다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EAP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것은 실업률이나 고용률 못지않게 국가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중의 하나이다. 각 국가는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감소에 직면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중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하고 있기에 보다 정밀한 대응정책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응정책의 마련에 기초가 되는 것이 각국의 노동인구와 관련된 각종 통계일 것이다. 그 가운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역별 비교는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청년실업의 실태와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로는 청년실업 원인과 해소방안과 관련된 강영주(2009), 김용성(2008), 최영섭(2004), 김석진·양희승(2004), 이상우·정권택(2003), 정인수·김기민(2005)의 연구가 있으며, 각 지역별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연구로 곽태열(2009), 박희석·한진아(2008), 박종태·조현수(2009), 박종태(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서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고용률 이외에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제활동인구 등 여러 변수들의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박종태(2010), 박종태·김동철(2011), 박종태·장희선(2013)) 한국노동시장에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김기호·장동구(2005)가 노동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업률 이외에 고용률의 노동시장에서의 정보변수로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대일(2000)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분석한 것이 있으며, 문외술(2008)이 노동시장 변수들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시장의 지역간 비교를 실증 분석한 연구로는 전병유(2006)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성장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제활동인구와 관련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부정책이 지역별로 시차적 내지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별 정책 및 예산배정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16개 시·도 지역에 대한 만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기초로 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다시 지역을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고 지역별과 남녀별로 경제활동참가

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별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계산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지역별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그 변동계수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또한,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의 크기와 시기별 변화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 2.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

국내의 행정구역상 16개 시·도를 광역권으로 분류하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각 지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3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아울러 남녀별로 경제활동참가율(단위: %)을 (남성(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남성(여성) 경제활동인구수/남성(여성) 15세 이상 인구수×100.0) 계산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전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통계표이고 그림 1은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표 1과 그림 1에서 보면 13년 동안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두 그래프의 모양은 13년간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최근에는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2, 그림 3에 잘 나타나 있다. 아래의 표 2는 5개 지역별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통계표이며 그림 2는 지역별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그래프이고 그림 3은 지역별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을 비교한 막대그림이다. 이 그림

을 살펴보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은 호남권(68.0%)>수도권(62.1%)>충청권(61.3%)>영남권(60.8%)>강원권(58.5%)의 크기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13년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3년 동안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호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2007년 이후부터 최근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  
Tab. 1. EAPR Statistics by Sex

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74.4	48.8
2001	74.3	49.3
2002	75.0	49.8
2003	74.7	49.0
2004	75.0	49.9
2005	74.6	50.1
2006	74.1	50.3
2007	74.0	50.2
2008	73.5	50.0
2009	73.1	49.2
2010	73.0	49.4
2011	73.1	49.7
2012	73.3	49.9
평균	74.0	49.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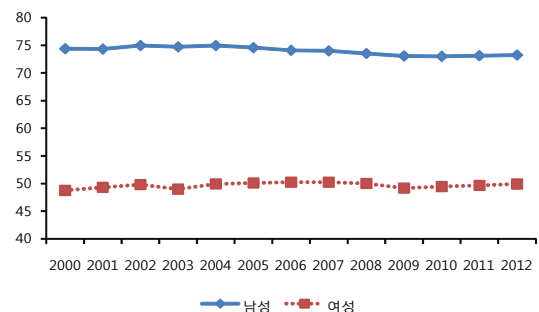


그림 1. 전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  
Fig. 1. EAPR by Sex in Overall Province

표 2. 지역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Tab. 2. Total EAPR by Provincial Region

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2000	61.7	58.8	60.4	61.0	66.7
2001	61.9	58.0	60.9	61.2	67.5
2002	62.3	59.7	61.9	61.8	68.1
2003	61.9	58.3	61.2	61.1	68.0
2004	62.7	59.1	61.7	61.7	67.8
2005	62.8	58.6	61.1	61.3	68.3
2006	62.6	58.9	61.6	60.9	68.3
2007	62.4	58.7	62.1	60.7	68.9
2008	62.0	58.7	61.6	60.5	68.8
2009	61.2	59.0	61.0	60.0	68.5
2010	61.7	57.6	60.9	60.0	67.6
2011	62.0	57.6	61.1	60.0	67.7
2012	62.1	58.1	61.0	60.4	67.4
평균	62.1	58.5	61.3	60.8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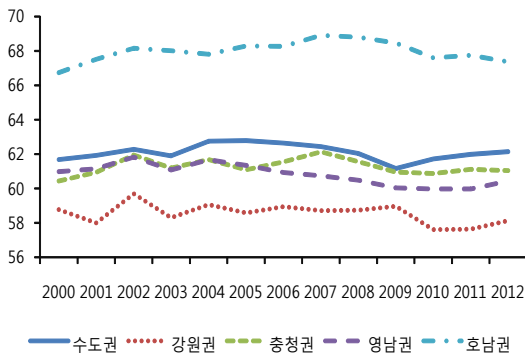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Fig. 2. Total EAPR by Provinci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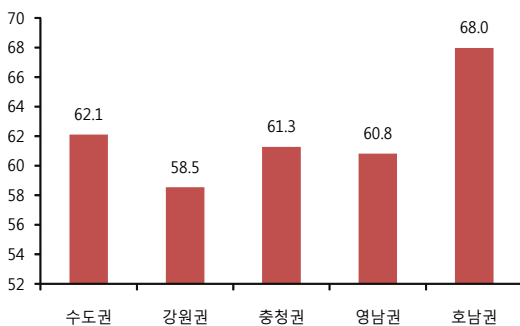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  
Fig. 3. Mean of Total EAPR by Provincial Region

다음에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로 다시 재분류하여 지역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3과 표 4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자료를 5개 지역별로 각각 나타낸 통계표이다. 또한, 그림 4와 그림 6은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역별로 각각 비교한 그래프이고, 그림 5와 그림 7은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을 지역별로 각각 비교한 막대그림이다. 이 표와 그림을 보면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13년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도 남성의 경우 호남권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강원권의 크기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호남권 > 충청권 > 수도권 > 영남권 > 강원권의 크기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모두에서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호남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Tab. 3. 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2000	76.0	70.2	72.1	74.0	78.7
2001	75.9	70.3	72.7	73.8	78.8
2002	76.5	71.1	73.5	74.6	79.1
2003	76.1	70.1	74.4	73.8	80.5
2004	76.2	70.3	74.8	74.3	80.2
2005	76.1	70.0	73.4	73.5	80.4
2006	75.5	69.9	73.2	73.1	79.8
2007	75.1	70.2	73.9	73.0	80.5
2008	74.5	69.5	73.5	72.5	80.6
2009	74.0	69.8	72.8	72.1	80.3
2010	74.4	67.8	72.6	71.7	79.3
2011	74.5	68.2	72.8	71.8	79.7
2012	74.5	68.6	72.5	72.4	79.5
평균	75.3	69.7	73.2	73.1	79.8

표 4. 지역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Tab. 4. Fe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2000	48.0	48.2	49.4	49.0	55.8
2001	48.5	46.6	49.9	49.5	57.1
2002	48.7	49.3	51.0	50.0	58.0
2003	48.3	47.4	48.8	49.3	56.7
2004	49.9	48.8	49.3	49.9	56.3
2005	50.0	47.8	49.5	50.0	57.3
2006	50.3	48.7	50.5	49.5	57.6
2007	50.2	47.9	50.9	49.3	58.3
2008	50.1	48.6	50.1	49.2	57.8
2009	48.8	48.8	49.5	48.6	57.4
2010	49.5	47.9	49.5	48.9	56.6
2011	50.0	47.5	49.8	48.7	56.6
2012	50.3	48.2	49.9	49.1	56.0
평균	49.4	48.1	49.9	49.3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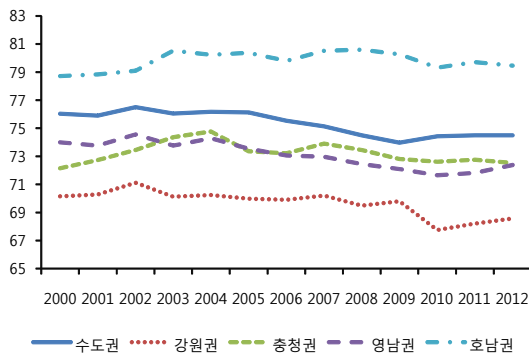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  
Fig. 4. Male EAPR Graph by Provinci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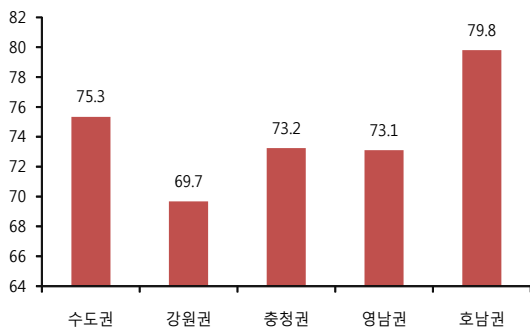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  
Fig. 5. Mean of 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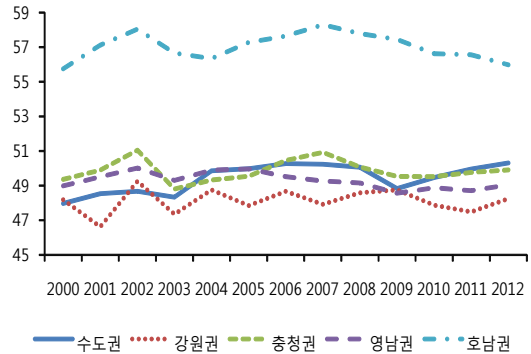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  
Fig. 6. Female EAPR Graph by Provinci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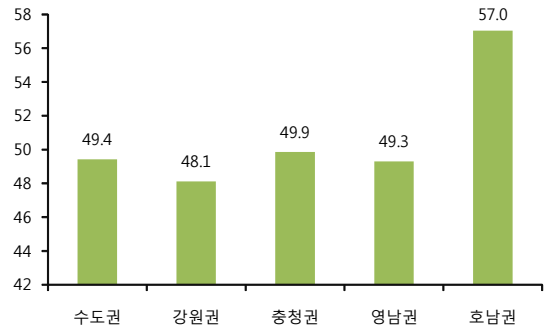


그림 7. 지역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  
Fig. 7. Mean of Fe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다음의 표 5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 각 지역별로 변동계수를 구해 비교한 통계표이다. 그리고 그림 8은 각 지역에 대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을 남녀별로 비교한 막대그림이고, 그림 9는 각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계수(%)를 남녀별로 비교한 막대그림이다. 이 두 그림을 보면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5개 지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변동계수의 경우에는 영남권에서만 남성(1.32%)이 여성(0.96%)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

표 5.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변동계수  
Tab. 5. Variation Coefficient of Male and Female EAPR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남성	1.14	1.36	1.04	1.32	0.84
여성	1.69	1.48	1.28	0.96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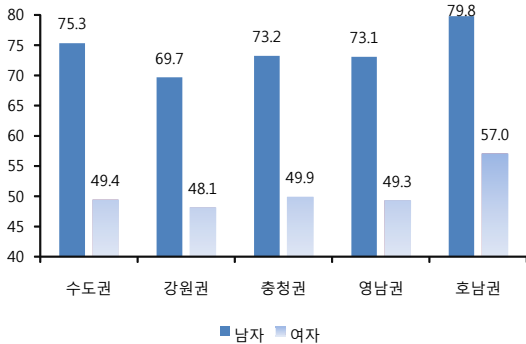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  
Fig. 8. Mean of Male and Fe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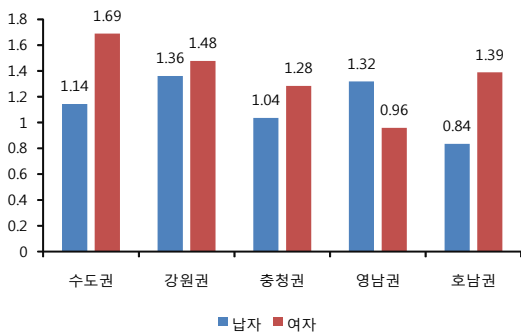


그림 9. 지역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변동계수  
Fig. 9. Variation Coefficient of Male and Fe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비(ratio)인 상대비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크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6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을 각 지역별로 요약한 표이며, 그림 10은 상대비율을 각 지

역별로 비교한 그래프이고 그림 11은 상대비율의 평균을 각 지역별로 비교한 막대그림이다. 이 표와 그림으로부터 상대비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호남권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수도권의 크기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5개 모든 지역에서 상대비율의 크기가 1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호남권에서는 상대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지역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  
Tab. 6. Relative Ratio of Male and Female EAPR by Provincial Region

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2000	0.63	0.69	0.68	0.66	0.71
2001	0.64	0.66	0.69	0.67	0.72
2002	0.64	0.69	0.69	0.67	0.73
2003	0.64	0.68	0.66	0.67	0.70
2004	0.65	0.69	0.66	0.67	0.70
2005	0.66	0.68	0.68	0.68	0.71
2006	0.67	0.70	0.69	0.68	0.72
2007	0.67	0.68	0.69	0.68	0.72
2008	0.67	0.70	0.68	0.68	0.72
2009	0.66	0.70	0.68	0.67	0.72
2010	0.66	0.71	0.68	0.68	0.71
2011	0.67	0.70	0.68	0.68	0.71
2012	0.68	0.70	0.69	0.68	0.70
평균	0.66	0.69	0.68	0.67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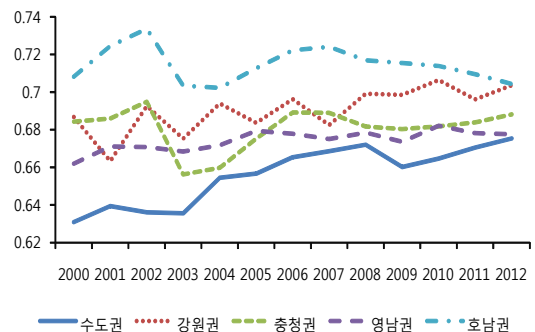


그림 10.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 그래프  
Fig. 10. Relative Ratio Graph of Male and Female EA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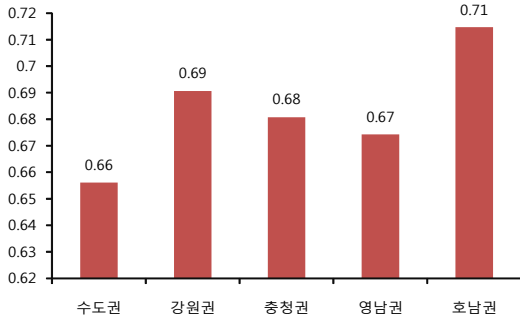


그림 11.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상대비율의 평균  
Fig. 11. Mean of Relative Ratio for Male and Female EAPR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있어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수도권에 대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12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3년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권의 경우는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에서 충청권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권에 대한 남녀별 비교 그래프는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6을 통해 호남권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최근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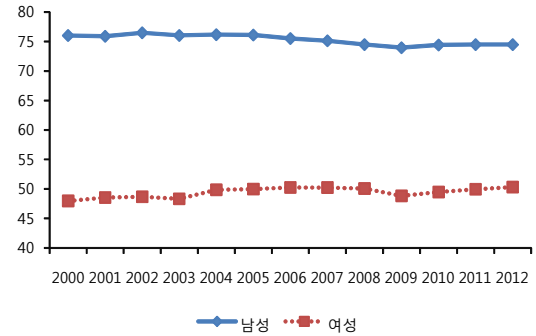


그림 12. 수도권에 대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Fig. 12. Male and Female EAPR of Capit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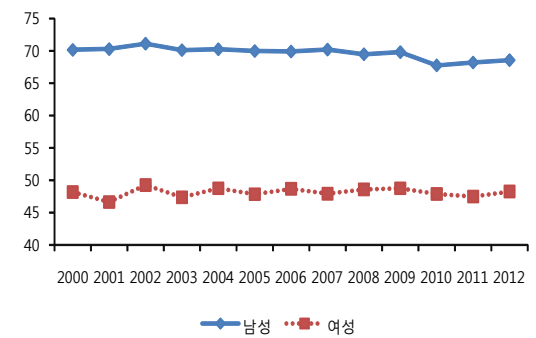


그림 13 강원권에 대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Fig. 13. Male and Female EAPR of Gangwon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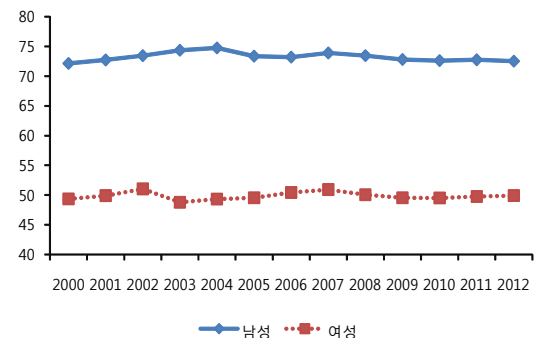


그림 14. 충청권에 대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Fig. 14. Male and Female EAPR of Choongcheong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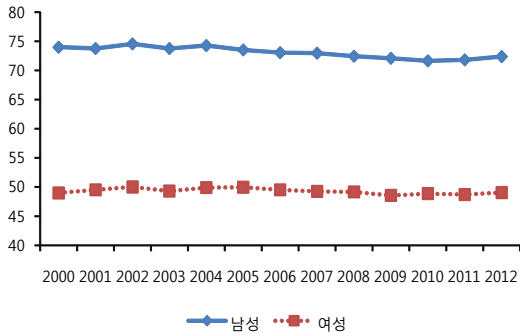


그림 15. 영남권에 대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Fig. 15. Male and Female EAPR of Youngnam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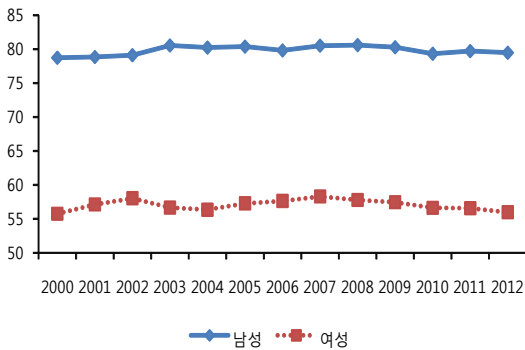


그림 16. 호남권에 대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Fig. 16. Male and Female EAPR of Honam Region

### 3. 결론

최근 13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인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의 경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에 비해 평균 약 1.5 배로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시기별 변화 추이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 최근에는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개 지역별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은 호남권이 68.0%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58.5%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 3년간 전체 경제

활동참가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2007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국과 마찬가지로 호남권이 가장 높고 강원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호남권이 가장 높고 강원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는 데 반해 호남권에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이 특이한 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계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영남권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모두 여성의 변동계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영남권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의 평균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호남권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수도권의 크기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5개 모든 지역에서 상대비율의 크기가 1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호남권에서는 상대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는 남녀별 경제활동인구에 국한된 사례이지만 성별뿐 만 아니라 앞으로 연령별, 학력수준별 등 다양한 인구특성에 따른 그룹별로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다면, 고용특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을 포함한 정책대응과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적용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1] 강영주 (2009), 청년실업 해소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2] 박태열 (2009), 경남의 청년실업 해소방안, 이슈분석, 경남발전연구원.
- [3] 김기호, 장동구 (2005),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경제분석, 11(2), 106-135.
- [4] 김대일 (2000), 한계적 경제활동참가자와 실업, 한국경제의 분석, 6(1), 1-68.
- [5] 김석진, 양희승 (2004), 청년실업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 [6] 김용성 (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7] 문외술 (2008), 한국 노동시장 변수들의 단기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경제분석, 14(4), 113-150.
- [8] 박종태, 조현수 (2009), 한국 청년실업률의 지역별 비교 분석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4, 87-104.
- [9] 박종태 (2010),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권역별 비교분석, 지식서비스연구, 3(2), 3-16.
- [10] 박종태, 김동철 (2011),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 지식서비스연구, 4(3), 51-64.
- [11] 박종태 (2013), 국내 청년층의 지역별 고용률에 대한 통계정보 서비스 분석, 서비스연구, 3(1), 75-86.
- [12] 박종태, 장희선 (2013),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지식서비스연구, 6(1), 43-57.
- [13] 박희석, 한진아 (2008), 서울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고찰, 서울경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4] 이상우, 정권택 (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15] 정인수, 김기민 (2006), 청년층의 실업실태파악과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16]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68, 205-234.
- [17] 최영섭 (2004),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18]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연보.



### 박 종 태 (Jong T. Park)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응용수학과에서 전산통계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평택대학교 디지털응용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계청에 재직하였으며, 관심분야는 회귀분석, 선형모형, 소지역추정 등이다.

주요 논문은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응용통계연구, 지식서비스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자료분석학회지, 한국지역경제연구, 통계연구 등의 학술지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자료분석학회, 한국통계학회 등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 장 희 선 (Hee S. Jang)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평택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백석문화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에 재직하였으며,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 모바일 산업, 기술경영, ICT 융합, 융합 비즈니스, 트래픽 엔지니어링 등이다.

주요 논문은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Telecommunications Systems, ETRI Journal, IE Interfaces, 한국통신학회지, 대한전자공학회지, 정보처리학회지, 대한산업공학회지, 융합보안 논문지, 한국 컴퓨터정보학회지, 디지털 콘텐츠학회지, 주간기술동향 등의 국내외 학술지와 ITC, ICC, APMC, CIC, NCS, CEIC, 대한산업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사이버테러 정보전학회 등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by Sex

Jong T. Park\* · Hee S. Jang\*\*

## ABSTRACT

It is important for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abou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by sex and tot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to a policy data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n use policies distinctively according to the region and keep the efficiency of detail policy application.

This paper shows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abou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by sex for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Gangwon region, Chungcheong region, Youngnam region, Honam region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ta in 16 cities and provinces. We used the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or 13 years from 2000 to 2012, we calculated tot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by sex about the 5 regions. And we analyzed the relative ratio betwee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of male and female by each region, we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by sex.

*Keyword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Relative Ratio, Coefficient of Variation*

---

\* Pyeongtaek University, Department of Digital Information & Statistics, Professor, jtpark@ptu.ac.kr

\*\* Pyeongtaek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Professor, hsjang@ptu.ac.kr